

社 說

農協 조합장 選舉

바야흐로 포천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가 올해 안에 대부분 실시돼 선거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7월 이전에 종전대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지만 7월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지난해 노사간 갈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개성인삼농협조합이 오는 1월17일에 2월1일부터 4년간의 임기로 취임하게 될 조합장을 선출한다. 영북농협은 임기가 오는 3월말로 조합장 선거는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 실시하면 된다.

포천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7월18일 만료되어 선거는 6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관인농협 조합장은 8월19일이 임기가 만료되고 일동농협조합장은 9월4일로 임기가 만료되며 소흥농협조합장은 9월11일, 가산농협조합장은 11월9일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개성인삼농협과 영북농협은 7월1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을 선출하지만 7월1일 이후에는 포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맡게 된다.이로써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출했던 조합장선거가 헌법기관의 관리로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월17일 실시되는 개성인삼농협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지역별로는 연천 2명, 포천 1명, 의정부 1명, 서울 1명 등이다. 기호1번 김교주 후보는 연천 출신으로 조합장이 된다면 개성인삼조합의 발전과 신뢰성 회복,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인직원과 대의원, 조합원과 머리를 맞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의논하여 개성인삼조합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호2번 유경중 후보는 서울 출신으로 홍삼제고의 전량수출로 조합조직정상화 및 각종 비리의혹조사 해결과 개성인삼축제 창안 경기도 제일의 축제로 육성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용 원료수매 자금 50억원 확보로 조합원농자금을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박창학 후보는 포천 출신으로 현직 조합장이며 가공은 장인정신체제로, 유통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제사업은 자체 경영혁신체제로, 금융은 책임실적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4번 이중서 후보는 연천 출신으로 지도사업을 조합원 실익위주로 봉사하고 신용사업은 500억원으로 증대,제조장은 자체계약물량 완벽처리할 수 있도록 재편,구조조정과 직원 재편성 및 비용절감으로 임기 전반기에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호5번 전기용 후보는 의정부 출신으로 조합원이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인삼제품 생산과 원가 절감으로 가공사업 활성화, 적극적인 여신증대로 신용사업 활성화 추진과 계통구내 사업을 통한 마트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성인삼농협조합장 선출은 그 어느때보다 의미가 있다. 지난 한해 노사분규로 실추된 조합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성인삼농협 2백여명의 직원과 1천50명의 조합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개성인삼농협조합을 더욱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포천과 연천지역 두 곳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앞으로의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마다 다양한 공약사항을 내걸고 개성인삼농협조합을 경영해보겠다고 나섰다. 이제 조합원들은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권이 남아 있다. 조합원들은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4년 동안 개성인삼농협조합의 역사를 좌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特別法 제정요구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특위활동 연장기로



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진훈련장을 방문해 부대관계자로부터 신정호 수 탁류병지 보강공사 추진사항을 설명을 듣고 공사현장 및 침소조 기능을 점검했다.

포천시의회는 제12회 포천시의회 의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해 12월22일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을 통과시켰다.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미8군측의 영평사격장 관련 주민의견 전달을 관철시키고, 사격장 피해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30일까지 특위 활동을 연장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포천시 소재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조사를 통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포천청년회의소는 2005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5년 1월 10일 포천시에서 열린 새해농정시책 발표회를 기념하는 자리로, 시의 농정시책을 밝혔다.

8곳의 사격장 현황을 방문했고, 인근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의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특별위원회의 2005년 주요 활동은 ▶10월 28일과 29일 : 제10회 임시회 제1차, 2차 특별위원회에서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등 4곳의 사격장을 방문하고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11월 16일 : 제11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창수면 랩탄사격장 방문, 소음측정을 통한 주민피해 상황확인 ▶11월 17일 :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승진훈련장을 방문하여 승진훈련장 주위 탁류병지 공사 추진상황 점검 및 기동포 공사현장 답사. 기타 활동으로는 ▶제11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을 통해 군부대 사격장 주민피해 방지대책 촉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4개 면에 소재하고 있는 미8군 종합사격장 등

수질검사 의뢰(적합회신) ▶오가삼거리에서 영평사격장 후분까지 가로등 설치 계획(현재 7등 설치완료, 1월중 32등 추가 설치 예정) ▶승진훈련장 1단계 보강공사비 부족분 2억 9천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해 지원 조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요구사항 반영 건의 등을 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의회의 특위구성 등 일단 사격장관련 활동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미군관할 사격장을 철수하고 '주한미군공역구역주변지역등지위특별법안',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포천지역의 사격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천시의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반세기 동안 피해만을 감내해 온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관내에는 ▶창수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랩탄사격장 ▶영북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 ▶영북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 승진훈련장, 소흥사격장 ▶이동면의 승진훈련장, 원평사격장, 광산골사격장이 포천시 전체면적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JC, 2005년도 신년 교례회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



지난 6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포천청년회의소 2005년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포천청년회의소는 지난 6일 박운준 회장을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포천 JC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운준 포천시장은 "4대 시정방침인 일류의 자치경영과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도농복합 균형발전의 기초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를 적극 추진하며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데, 새해 시정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를 희망과 역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포천청년회의소는 2005년 1월 10일 포천시에서 열린 새해농정시책 발표회를 기념하는 자리로, 시의 농정시책을 밝혔다.

박 시장은 포천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리들 한방마을'과 '순두부마을', '금동리 산촌마을', '전통장마을', '구절초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사과와 포도를 선택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를 적극 추진하며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데, 새해 시정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를 희망과 역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포천청년회의소는 2005년 1월 10일 포천시에서 열린 새해농정시책 발표회를 기념하는 자리로, 시의 농정시책을 밝혔다. 박 시장은 포천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리들 한방마을'과 '순두부마을', '금동리 산촌마을', '전통장마을', '구절초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사과와 포도를 선택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를 적극 추진하며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데, 새해 시정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를 희망과 역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포천시, 새해 농정시책 밝혀

도시소비자 유통반 편성 눈길

박운준 포천시장은 지난 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린 새해농정시책발표회를 통해, 시의 농정시책을 밝혔다.

박 시장은 포천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리들 한방마을'과 '순두부마을', '금동리 산촌마을', '전통장마을', '구절초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사과와 포도를 선택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를 적극 추진하며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데, 새해 시정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를 희망과 역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포천청년회의소는 2005년 1월 10일 포천시에서 열린 새해농정시책 발표회를 기념하는 자리로, 시의 농정시책을 밝혔다. 박 시장은 포천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리들 한방마을'과 '순두부마을', '금동리 산촌마을', '전통장마을', '구절초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사과와 포도를 선택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를 적극 추진하며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데, 새해 시정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를 희망과 역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연체형형 협업목장 13만평을 조성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끝으로, 포천시는 소음과 포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인 만큼, 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특성을 잘 살린 농촌특화사업을 전개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포천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05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05년 포천시 새해농정시책 발표회'는 1월 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지역농업인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 농업협상 동향 ▲지역농특산물 브랜드화 전략 ▲핵심 농업기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꿈과 희망의 抱川時代” 연다

포천시 시무식



포천시는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05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포천시는 지난 3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각 사업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박운준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의 비전을 안고 ▶일류의 자치경영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도농복합 균형발전 등 4가지 시정지표를 완수하는데 각 부서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든 이웃을 돕는 일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해에는 "사민경제 활성화"와 "소의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년 포천신문 신년인사회

“순수유료독자 1만명시대 활짝 열자” 다짐



지난 7일 오전11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임원진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05년 포천신문 각 위원회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임원진은 7일 오전11시 소흘읍 송우리 한 음식점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순수유료독자 1만명시대를 함께 활짝 열자고 다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과 양주승 자문위원장, 윤이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장, 김대열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신년인사회는 신년케이크절단식에 이어 신년덕담 및 사업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열 발행인은 신년덕담을 통해 "지난 한해 정성껏 도와주신 각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익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게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한줄 보다는 두줄, 세줄이 더욱 힘을 발휘 하듯이 포천신문 각 위원회가 서로 힘을 모아 포천신문 발전은 물론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이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포천신문과 더불어 우리 모두 성장하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장은 "지난해 출판한 주부명예기자단이 그동안 닦은 기반 위에 2005년도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은 "여

기 모인 어른들의 성공한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주 많다"며 "이러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포천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복 편집국장에 의해 발표된 포천신문 2005년 사업계획은 "순수유료독자 1만명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독자배가운동에 나서 줄 것"을 밝혔으며 "논설위원회의 자문봉사를 조직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신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한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2005년 포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포천신문은 또 2005년 1월부터 기존 4만8천원하던 1년 구독료를 5만원으로 2천원 인상키 했으며 월 구독료는 5천원, 평생회원은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각 위원회가 연합하여 워크숍을 오는 4월말이나 5월초에 갖기로 합의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율곡계 성장하고 있는 포천신문 발전에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박운준 포천시장은 지난 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린 새해농정시책발표회를 통해, 지역 체험형 협업목장 13만평을 조성하는 등 선진화된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2개노선 건설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2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41.7km로 왕복 4~6차선 규모로 마포구 삼양동~일산신도시~과주 급근~문산~자유로(임진각)의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국민연금의 SOC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들 2개 고속도로 사업이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상세 투자 계획 등을 앞당겨 마련키로 했다.

간자본의 투자유치 외에 자체 지방재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41.7km로 왕복 4~6차선 규모로 마포구 삼양동~일산신도시~과주 급근~문산~자유로(임진각)의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동두천 고속도로는 53.4km로 왕복 4~6차선 규모로 서울~구리~남양주~양주~동두천으로 이어지며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갈라지는 Y자 도로도 건설돼 경기 중·동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길”

포천시의회 단배식



포천시의회는 지난 5일 '2005년도 포천시의회 단배식' 행사를 3층 회의실에서 갖고 2005년 업무를 시작했다.

최대중 시의회의장 및 의원과 시의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케이크절단식, 건배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대중 포천시의회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포천시와 시의회의 상생의 관계를 통해 시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포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의원들은 비전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배식이 끝난후 참석자들은 서로 다과를 권하며 덕담을 나누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2005. Includes details like 'Subscription Fee: 50,000 won/year', 'Contact: 031-542-1507', and 'Website: http://www.ipcs21.com'.